

기획특집 수입개방시대 개막, 우리가 살 길은?

우리는 이렇게 수입 개방 파고를 넘겠다.

차단방역

1. 머리말

1997년 7월은 1995년 이후 국지전으로 전개되던 한국 양돈산업시장에 선진 양돈국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시기이며 한국 양돈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싸움을 시작해야하는 때이기도 하다.

다행히 1989년 12월 U.R. 협의의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많은 양돈인들이 기정사실화 된 수입개방의 전면전에 대비 좋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 비약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냉정히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 아직도 시정하고 다져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음 또한 부

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노력해 온 동료 양돈인들과 함께 그 방안의 일환인 방역(차단방역)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방역

일반적으로 방역이라 함은 병의 발생 및 유행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한 병의 유행 확대를 방지 소멸하는 것으로서 전염원의 제거, 감염경로의 차단, 감염숙주에 대한 저항력 증강 등이며 이를 복합적으로 응용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병의 유행을 방지코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차단방역의 대상인 감



이희득 대표
(경북중돈)

염경로의 차단 및 소독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 감염경로와 차단

감염 경로로는 *병원체와 감염체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직접감염, 예를 들면 종모돈과 종빈돈과의 교배 또는 보균 및 환돈과의 직접 접촉 등. *현장을 드나드는 기계 설비, 출하, 사료·약품운반차량, 축사와 축사 간의 이동, 환돈 또는 보균돈의 분비물 및 배설물, 토양, 기구, 음수등을 통한 간접감염. *야생동물 및 곤충에 의한 감염을 들 수 있는데 감염경로의 차단은 병원체와 감염체의 접촉을 차단, 병원체와 감염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끊

음으로 병의 유행 및 확대를 방지하는 방역의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차단방역은 위의 3가지 감염경로를 여하히 차단하느냐에 그 성패가 결정되어 지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독이라 할 수 있다.

나. 소독

소독조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독력이 강하며 소량으로 유효할 것, 물에 용이하게 용해되며 독성이 적고 소독대상물에 손상이 적으며 개봉 후에도 장기간 보존 가능할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할 것 등이다. 또한 소독약의 선택은 병원성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소독약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므로 대상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의 정도, 소독대상물의 상태를 파악 선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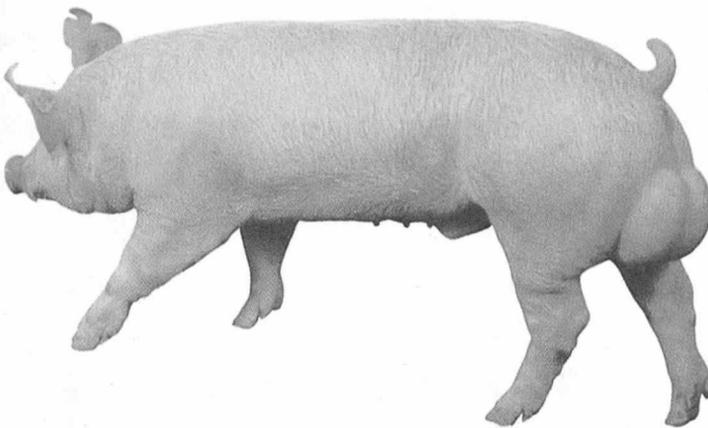
(예 : *최강균 : 탄저균, 파상풍균 등 *강균 : 결핵균, 포도상구균 등 *보통균 : 대장균 등 *약균 : 부루셀라균, 출혈성 패혈증균 등)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 소독 목적에 준한 소독약이 선택되어지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행에 앞서 경영주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현장관리자의 숙지가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양돈 현장을 볼 때 방역과 소독에 대한 경영주의 인식도도 문제이나 무엇보다 능력과 경험이 천차만별인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실행토록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반복된 실천으로 그 행위 자체가 자연스런 습관이 되어지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현장과 외부와의 차단, 돈사와 돈사간의 이동시 사람, 돈체, 기구의 소독, 담당작업장 관리자 사이의 접촉 및 사료, 약품, 비품 등 공동보관소 이용 시 주



의사항, 교배시 종모돈, 종빈돈, 교배보조자의 청결, 보균 및 환축돈의 격리, 야생동물 및 곤충의 유입 방지, 현장 주변의 전염원 요인 제거 등 가능한 감염 경로를 가정, 이에 대한 차단방법을 각개 현장의 여건에 맞춰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교육, 실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예) 대만 구제역

이러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돼지구제역의 발생 및 신속한 확산이다. 지난 3월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1개월 이내에 대만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병에 걸린 돼지의 밀수입 및 불법매매, 농장 출입차량의 소독 미실시 및 질병 발생사실의 은폐, 신규 구입돈의 농장 내 일정기간 격리 및 검역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양돈산업 붕괴와 함께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3. 맺음말

우리는 지금 수입개방 파고를 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사양관리기술과 기초생산성 향상을

지난 3월 처음으로 발생

한 구제역이 1개월 이내에 대만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병에 걸린 돼지

의 밀수입 및 불법매매, 농장 출입차량의

소독 미실시 및 질병 발생사실의 은폐, 신규

구입돈의 농장 내 일정기간 격리 및 검역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양돈 산업 붕괴

와 함께 약 9조원의 경제적 손실

을 입게 되었다.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함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방역에 대한 인식과 실행은 참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돈산업 또한 그 생산물로부터

터 비롯되어지는 경제적 환전 가치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지키고 키워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품가치의 하락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유발,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좋은 예가 구제역으로 인한 대만의 경우일 것이다.

방역은 예방접종과 함께 나를 지켜주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어질 타인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타주의적 사고로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라는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천이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뿌리내려질 때 양돈인 모두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 어떠한 형태의 수입개방 파고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이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족한 글을 맺고저 한다.

본 지 캠페인

대만 구제역,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